

새로 나온 책

▶ 바람에 빌려온 섬의 사유(송미아 지음)=제주 태생 작가가 청소년문학 독서 평론집을 펴냈다. 책은 5장으로 구성돼, 16편의 평론을 담고 있다. '제주어 용례 사전'을 비롯해 4·3과 해녀, 환경, 설화, 작곡, 사진, 영화, 그림일기 등 다양한 텍스트를 '독서'의 범주로 확장했다. 저자는 청소년 독자들이 서로 다른 텍스트를 연결하며 사유의 길을 열어가길 바라는 뜻을 책에 담았다. 한그루. 2만2000원.

▶ 우리 삶이 시가 될 때(MBC 라디오 여성시대 지음)=국내 최장수 라디오 '여성시대'가 방송 50주년을 맞아 첫 필사집을 펴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청취자들이 보내온 편지와 '월간 여성시대' 에세이, '신춘편지소' 당선작 가운데 마음을 울린 100편의 문장을 염선했다. 평범한 이웃의 삶부터 박완서·나태주 등 작가들의 글까지, 위로와 공감의 문장들이 다섯 장에 걸쳐 이어진다. 김영사. 2만1000원.

▶ 나는 120살까지 살기로 했다(이승현 지음)=뇌교육 자이자 명상가인 저자가 한국인의 삶과 죽음을 바라보는 관점인 '장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다. 60대 후반에 접어든 저자는 삶을 돌아보며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성찰한다. 이 책은 '어떻게 완성된 삶을 살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노년의 삶을 주체적으로 설계하고 마무리해 가는 구체적인 방향과 방법을 제시한다. 한문화. 2만원.

▶ 질문으로 배우는 인성동화(권운오 지음·이육남 그림)=아이들이 교실과 가정에서 마주하는 생생한 갈등 상황을 흥미로운 동화로 풀어내고, 질문을 통해 스스로 깨달음을 얻도록 돋는 인성 길잡이 책. 자존감과 성실함을 다룬 이야기부터 아이들이 일상에서 겪을 법한 문제 상황과 그 해법의 실마리를 제시하는 옛이야기까지 모두 20편을 담았다. 정직과 공정, 배려 등 삶의 태도를 익힐 수 있다. 함께. 1만4300원.

▶ 고영희 여사의 고만고만한 행복 찾기(진실희 지음·그림)=왕년에는 '전설의 낚시꾼'이었지만 이제는 고등어 잡던 기억도 회미한 고영희 여사. 긴 기다림 끝에 찾아온 입질, 팽팽한 대결 끝에 손에 진 것은 작은 고등어 한 마리뿐. 하지만 이웃과 나눠 먹는 소박한 저녁 속에서 고 여사는 진짜 행복을 만난다. 크지 않아도 충분한, 늘 곁에 있는 행복을 유쾌하게 그린 그림책이다. 이야기꽃. 1만6800원. 김채현기자

이 책!

뤼디거 자프란스키의

『개인의 철학』



비틀린 욕망이 부른 파국

박해동 '블랙 먼데이'

타인을 내 뜻대로 조종함으로써 비로소 자신의 존재를 확인받으려는 욕망. 그것은 사랑일까, 아니면 파괴 본능일까. 2025년 제13회 수립문학상 수상작인 박해동 작가의 장편소설 '블랙 먼데이'가 출간됐다. 소설은 결보기에 평범한 엘리트지만 내면은 결핍과 집착으로 얼룩진 한 남자의 파국을 치밀한 심리 묘사로 그려낸다.

소설의 중심에 선 인물 '연수'는 28세의 영문학 박사과정생이다. 학위 논문 발표를 앞둔 그는 표면적으로는 지적이고 성실한 연구자처럼 보인다. 그러나 번듯한 가면 뒤에는 어린 시절 죽은 형에 대한 뿌리 깊은 열등감, 성적 성숙장애, 그리고 편집증적 사고가 뒤엉킨 위태로운 내면이 도사리고 있다. 연수의 삶을 지탱하는 유일한 동력은 아버지의 제자이자 자신의 과외 교사였던 '현진'을 향한 맹목적인 집착이



그리고 개인이 세계 속에서 자신을 어떻게 다시 세웠는지를 탐구하는 장대한 지적 여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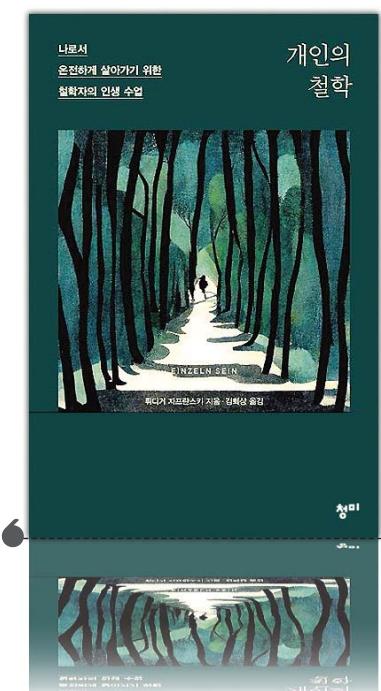
저자는 시대를 대표하는 사상가와 예술가들을 소환해 역사적 맥락과 함께 '나라는 개인'의 궤적을 그린다. 신의 질서에서 벗어나 자신을 자각했던 르네상스의 인간들과 신 앞에 훌로 선 인간의 근원을 제시한 루터는 근대적 개인의 서막을 알렸다. 특히 몽테뉴는 외부 세계의 혼란 속에서도 "나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자기 성찰의 시초를 열었고, 루소는 개인과 공동체가 충돌하는 복잡한 윤리적 지형을 포착했다.

책은 근대를 넘어 현대의 문턱에서도 개인을 조명한다. 소로는 월든 호수가에서 훌로의 삶을 실험했으며, 한나 아렌트는 인간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한 존재'로 재해석했다. 사르트르는 전쟁과 부조리의 시대 속 개인이 어떻게 실존의 선택으로 자기 자신을 만들어 가는지를 제시했다.

자프란스키는 각기 다른 시대를 살았던 이들을 관통하는 질문, 즉 "개인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나는 어떻게 나로서 존재하는가?"에 주목한다. 그는 독자들을 철학자 속 개인이라는 개념의 '탄생-위기-전환'의 여정으로 초대하며, '나다움' 조차 새로운 소비 기준이 되고 비교와 자기 연출이 강박이 된 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철학적 위로를 건넨다.

결국 자프란스키가 복원하고자 하는 것은 '느림의 사유'다. 그는 미지와 속도가 사고를 대신하고, 타인의 시선이 정체성을 대신하는 세계에서 느리게 생각할 용기를 주문한다. 외부의 잣대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나침반처럼 자신의 방향을 가리키는 태도야말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덕목이라는 것이다. 느림의 사유 속에서 개인은 다시 자신에게 말을 걸고, 세계와 관계 맺는 법을 배우게 된다. 청미. 2만8600원.

김채현기자 hakch@ihalla.com



"개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자신이 언제나
그 어떤 공동체에 속하면서도
스스로 훌로 설 줄
알아야 힘을 뜻한다"

- 서문 중 -

축
임
제주향교 제34대 전교

진 인 수
(전국향교전교협의회회장)

제주향교 제34대 전교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제주향교 유림일동

승
축
진
부이사관

김 영 준

부이사관(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식품국장)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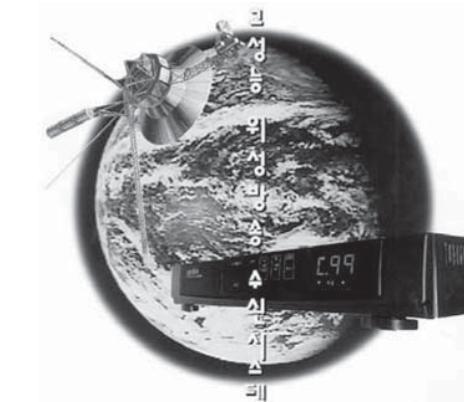
난산리 가족 일동

수
축
상
대통령표창

양 일 성
(제주로타리클럽 제56대 회장)

대통령표창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국제로타리 3662지구
제주로타리클럽
회장 라상균 외 회원 일동

제주 통신기반 구축
한라가 책임집니다.

하고 있는 일

- ▶ 키폰·교환기 설치 및 유지보수
- ▶ 건물구내통신 설비공사
- ▶ CCTV 및 공첨 설비공사
- ▶ 통신전주건식(가입자부담공사)
- ▶ 네트워크 설비공사
- ▶ 전광방송 설비공사
- ▶ 광케이블 포설 및 접속공사

정보통신사업 등록업체(제180008호) / ISO 9001 인증업체

한라전설(주)

대표 : 현문찬
제주시 삼도1동 539-1 신산스카이빌 104호
☎ 753-0404 FAX. 751-0045